

“아이들이 낯선 환경서도 배움 포기하지 않길”

심성재(사)길목커뮤니티 대표

“이주배경아동들이 차별 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심성재(00·사진) (사)길목커뮤니티 대표는 전남 서부권 이주민과 이주배경아동을 위한 지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목포 출생인 심 대표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며 신앙을 키웠다. 선교의 꿈을 품은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무렵이었다.

하지만 심 대표는 고려대 화학과에 입학했고 졸업 후 1988년 조미료 회사인 ㈜미원에 입사했다. 그럼에도 마음 한편에는 늘 선교의 꿈을 간직하고 있었다.

심 대표는 12일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선교에 대한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며 “언젠가는 선교 현장으로 가야겠다는 마음이었다”고 회상했다.

실제로 그는 1996년 꿈꿔왔던 선교의 길을 위해 ㈜미원을 나왔으며,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사역할 곳을 찾기 시작했다.

심 대표는 “선교 미개척지를 중심으로 사역할 곳을 찾던 중 카자흐스탄에 관심을 갖게 됐

카자흐스탄서 약 10년간 선교활동

2013년부터 영암서 이주민 지원

초록우산과 브릿지스쿨 본격 운영

이주배경아동 한국어 학습 등 도와

다”며 “당시 현지에는 기독교 활동이 거의 없었고, 누군가는 들어가야 할 곳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1999년 카자흐스탄에서 비영리법인 ‘아시아 문화개발 협력기구’를 설립, 교육·문화 지원과 한-카자흐 문화교류 활동에 나섰다.

컴퓨터센터와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행사 지원, 의료봉사 연계 등 활동은 2008년까지 이어졌다.

카자흐스탄에서 활동을 마친 뒤 미국에서 신학과 선교학을 공부한 심 대표는 2012년 한국으로 돌아와 목포를 거점으로 지역 이주민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금의 이주배경아동 지원 활동은 2013년 대불산단 일대 이주민 지원에서 출발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족을 국내로 데려오면서 뒤늦게 입국한 자녀들이 한국어와 학교생활, 학업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직접 보게 되면서다.

심 대표는 “부모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지만,

본국에 있던 자녀들이 뒤늦게 들어오면 언어부터 학교생활까지 모두 낯선 경우가 많다”며 “그 아이들이 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보며 돕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계기로 심 대표는 2021년 영암군 삼호읍에 길목커뮤니티와 작은도서관을 세우고 한국어 교육과 기초학습, 한국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사단법인 등록 이후에는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 초록우산과 함께 이주배경아동 지원 사업인 ‘브릿지스쿨’을 본격화했다.

브릿지스쿨은 이주배경아동들이 한국어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학교 과목을 익히고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심성재 대표는 “네팔과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학교 공부를 따라가며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뿌듯하다”며 “이주배경아동들이 어느 환경에 있던 배움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브릿지스쿨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아이들이 꾸준하게 도움받을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연상기자



농협 곡성군지부, 영농지원 발대식·농촌 일손돕기

농협 곡성군지부는 지난 10일 곡성읍 신리 소재 딸기 재배 농가에서 곡성군청과 곡성농협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범농협 영농 지원 전국 동시 발대식”을 개최하고 현장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발대식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역 유관기관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연계한 현장 밀착형 일손 돕기 지원 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난달 12일 입국한 라오스 국적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30여명이 동참해 영농 현장

의 안정적인 인력 공급 결의를 다졌으며, 참가자들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해당 농가의 딸기 모종 제거 작업을 직접 돕고 실질적인 영농 지원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원술 조합장은 “곡성군과 농협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으로 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가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대용 지부장은 “일손돕기를 시작으로 5~6월 농촌 일손 집중 지원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곡성=김영필기자



농어촌공 목포무안신안지사, 청년농 정착 설명회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는 “최근 지사 대회의실에서 청년농업인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소통형 의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영농 초기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농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장 큰 과제인 농지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사는 10~30년간 임대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선임대후매도사업’을 비롯해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농지임차임대사업’,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등 핵심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법필재 지사장은 “청년들이 농지 확보 부담 없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최우선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즉각 반영되는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전남도 대표 청소년 어울림마당’ 성료

전남도와 청소년미래재단은 지난 11일 무안 남악중앙공원에서 청소년 공연과 체험활동을 결합한 ‘2026 전남도 대표 청소년어울림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청소년, 함께 PLAY 전담’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청소년이 직접 참여해 공연과 체험활동을 즐기는 문화축제로 진행됐다.

밴드와 댄스팀 등 총 14개팀이 무대에 올랐으며, 젊은 에너지와 개성을 담은 공연이 축제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현장에서는 드론 체험, 공예활동, MBTI 검사, 목공놀이 등 체험부스를 무료로 운영해



사전 신청 없이 청소년과 가족,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토록 해 청소년 간 교류·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시·군별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과 문화행사를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양시원기자

영광경찰·한빛원자력본부 ‘교통 안전 캠페인’

영광경찰서는 “최근 한빛원자력본부로부터 교통 약자 보호와 운전자 법규 준수 유도를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 홍보물을 전달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역 내 주요 기관과 공조해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경찰은 해당 홍보물을 현장에 배부해 어르신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 대상 맞춤형 안전 교육을 강화하며 안전띠 착용, 음주 및 과속운전 금지 등 대국민 집중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성민 한빛원자력본부장은 “지역과 함께하는 행복동행 일환으로 고령화 시대 우리 지역 주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앞장서



다”고 말했다. 김종신 경찰서장은 “운전자들에게도 안전띠 착용 등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리고, 지역 내 교통 시설물 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해 출중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영광=김동규기자

장숙남 제44대 광주지방보훈청장 취임



장숙남(사진) 제44대 광주지방보훈청장이 취임했다.

12일 광주지방보훈청에 따르면 장 신임 청장은 광주보훈청 개청 이래 첫 여성 청장으로, 지난 10일 독립운동기념탑과 현충탑, 국립5·18민주묘지를 잇따라 참배하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장 신임 청장은 1990년 공직에 입문해 혁신행정담당관, 국립묘지정책과장, 제대군인지원과장, 기념사업과장, 인천보훈지청장 등을 역임하며 보훈 행정 전반을 두루 경험했다.

장숙남 청장은 “보훈 가족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고 기억하는 보훈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재영기자



여수경찰, 학대 피해 아동 센터 지원금 전달

여수경찰서는 “최근 신한금융희망재단과 협력해 확보한 범죄 피해자 지원금을 방암 등 학대 피해 유아동을 전달 보호 중인 지역 쉼터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금은 경찰청과 신한금융, 행정안전부의 3자간 업무협약에 따라 민간 금융재단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학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회복과 자립을 돕는 맞춤형 사회적 보호망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합동 점검을 통해 영양결핍과 동상 등으로 구조된 기초생활수급 유아동을 최종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지원금은 전액 양육비로 쓰일 예정이다.

앞서 여수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총 6명의 범죄 피해자에게 1천600만원의 후원금을 연계 지원했다.

장원석 경찰서장은 “민·관이 합심해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촘촘한 지역사회 보호망을 확립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



광주 북부경찰, 보이스피싱 막은 은행원 감사장

광주 북부경찰서는 12일 “지난 10일 광주농협 매곡동지점을 방문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직원 A씨에게 광주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33분께 지점을 찾은 고객 B(50대) 씨가 현금 2천900만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B씨는 2천만원 이상 인출 시 경찰 입회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은 뒤 갑자기 자리를 벗어나 통화를 이어가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고, 이를 의심한 A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 확인 결과 B씨는 정부 지원 대출을 빚지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신속한 신고로 피해를 막았으며,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도 차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백승 북부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찬용기자

부음

▲곽수식씨 별세, 곽도규(KIA 타이거즈 투수)씨 조부상=발인 13일(월)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 국화 6호실(031-630-4441).